

## 2.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 적용

### 가. 지표 적용 도시의 선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생태문화도시 평가지표를 연구대상지인 강동구에 적용하여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적용대상인 강동구는 태고 때부터 “아리수(漢江)”의 수원은 천리길 태백산맥 준령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오백리길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대하를 이루어 고덕산과 아차산 협곡을 거쳐 이곳 광나루에서 대자연을 펼쳐 놓으니, 인가생활에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춘 천혜의 요충지인 강동은 일찍이 6,000년 전에 선사문화의 꽃을 피웠고, 또한 고조선시대 한반도에 회안국을 세운 선조들이 남하하여 이곳에 풍 남토성을 축조, 성곽북쪽 강동지역을 전략촌으로 하여 나라를 세우니 바로 백제의 350여 년간 하남 위례성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그 후 삼국시대에는 비옥한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는데 고구려 장수왕 63년(475년)에 이곳을 60여 년간 점령하였고, 백제 성왕 29년(551년)에 빼앗긴 옛 도읍지를 회복하였으나, 2년 후 신라의 지배에 들어가 진흥왕 18년(557년) 이곳을 행정지역에 편입 북한산주를 설치하고, 삼국통일을 위한 북방진출 전략지역으로 중요시 하였다.

고려 성종 2년(983년)에 이곳에 공주목으로 개칭 절도사를 두어 다스렸고, 조선 선조 10년(1577년)에는 광주부로 승격 남하에 대응코자 광주부사를 유촌으로 승격시켜 수어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인조 14년(1636년)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임시 수도를 정하여 주치소를 산성내로 옮기기도 하였다.

갑오개혁으로 모든 제도가 개편되면서 1895년 광주군이 되었으며,